

지사메시지

- 오카야마현지사 이바라기 류타입니다.
-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맹위를 떨치며, 감염 확산이 급속히 파고드는 가운데, 본현에서도 신규 양성자 수는 제5차 유행의 2배 이상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
- 오미크론 변이는 감염력이 강했던 델타 변이보다도 더 약 3배가 강하다는 지적이 있어, 본현에서는 이후 급속적인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월 31일까지를 「오미크론 변이 특별경계기간」으로 정했습니다.
- 회식은 4명 이하 2시간 이내로 가족이나 매일 만나는 사람들로 한정시키는 등의 4가지 「오카야마 약속」을 정했습니다. 현민 여러분에게는 고조된 긴장감을 갖고 기본적인 감염방지 대책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- 특히 유효한 것은 「부직포 마스크」입니다. 이야기할 때는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는데 철저히 해 주십시오.
- 사업자 여러분에게는 직장에서 감염방지를 위한 실천 사항을 철저히 하는 것 외에도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는 입소자, 직원 등에게 백신추가접종에 대한 예정을 앞당겨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- 이것 이상으로 감염확산을 방지하여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해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.